

36 전도하시는 예수님

Chapter

요 3:1~15, 요 4:20~28
은혜찬송 167장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 162장 (들어 보겠니)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전도임을 압니다.
2.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도 전도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일본이 2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기의 일입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파혼, 자살 기도, 그리고 폐결핵과 척추 이상으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절망과 허무에 빠져 죽음만을 기다리던 20대의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같은 병원에서 종종 결핵으로 요양하는 한 소꿉친구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친구는 그녀에게 수많은 편지로 복음을 전하며 진실한 사랑을 베풀지만 이미 죽음보다 더한 절망에 빠진 그녀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그녀 앞에서 돌멩이를 들어 자기 발을 막 찍어댔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에게 친구가 말하기를, “당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지도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친구의 간절한 모습과 자기를 찾아오는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 4년 만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7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수필과 책을 써서 큰 영향을 끼치는 작가가 됩니다.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와 그녀를 전도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부탁함으로써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3년 반이라는 공생애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으며, 이렇게 전도하시느라 때로는 식사를 거르셨으며 잠시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데 주님이 친히 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간 주님의 일꾼들과 성령이 계시는 교회들이 가장 중히 여기며 행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막 1:38)

But He said to them, "Let us go into the next town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because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forth." (Mk 1:3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막 1:14~15)

(요 4:31~38)

(행 10:38~43)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마가복음 1장 21~39절을 읽어봅시다.

1.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전까지 하시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사람을 고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 집중했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 다투어 나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4.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전도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세계, 곧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전도하지 않는 죄

2차 대전 후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벨러’라는 목사가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발발에 대해 그는 히틀러의 책임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심판대 옆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 주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꿈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이 없었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